

## 제2장 세계 출판 시장의 동향 및 전망

### 제1절 세계 출판 시장 규모 및 전망

#### 1. 세계 출판 시장 규모 분석

2010년 세계 출판 시장규모는 약 1,845억 달러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규모로 추정되었다. 세계 출판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9%의 성장을 통해 2015년 2,02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 세계 출판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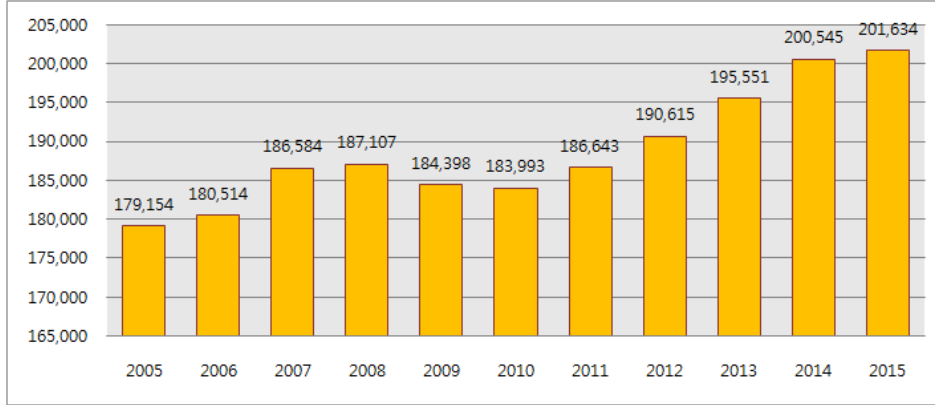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서	소계	64,831	65,525	69,846	69,264	68,776	69,348	71,184	73,323	75,963	78,290	77,814	2.3%
	인쇄물	64,670	65,214	69,300	68,443	67,496	67,536	68,276	69,279	70,553	72,033	70,997	1.0%
	디지털	161	311	546	821	1,280	1,812	2,908	4,044	5,410	6,257	6,817	30.3%
잡지	소계	46,354	46,683	47,492	47,613	46,083	45,523	45,913	46,950	48,247	49,693	51,138	2.4%
	인쇄물	46,171	46,159	46,569	45,789	43,902	43,027	42,914	43,260	43,839	44,546	45,253	1.0%
	디지털	183	524	923	1,824	2,181	2,496	2,999	3,690	4,408	5,147	5,885	18.7%
신문	소계	67,818	68,341	69,383	70,595	69,991	69,604	70,020	70,838	71,866	73,122	73,278	1.0%
	인쇄물	66,532	66,401	66,662	67,186	65,894	65,048	64,995	65,338	65,889	66,490	66,424	0.4%
	디지털	1,286	1,940	2,720	3,409	4,097	4,557	5,024	5,499	5,976	6,632	6,854	8.5%
인쇄물 소계	177,373	177,774	182,531	181,418	177,292	175,611	176,185	177,877	180,281	183,069	182,674	0.8%	
디지털 소계	1,630	2,775	4,189	6,054	7,559	8,864	10,931	13,234	15,794	18,035	19,556	17.1%	
모바일 소계	81	139	209	303	378	891	1,130	1,424	1,760	2,314	2,869	26.3%	
합계	179,154	180,514	186,584	187,107	184,398	183,993	186,643	190,615	195,551	200,545	201,634	1.8%	
전년대비성장률		0.8%	3.4%	0.3%	-1.4%	-0.2%	1.4%	2.1%	2.6%	2.6%	0.5%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인터넷미디어종합연구소;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그림 II-1] 세계 출판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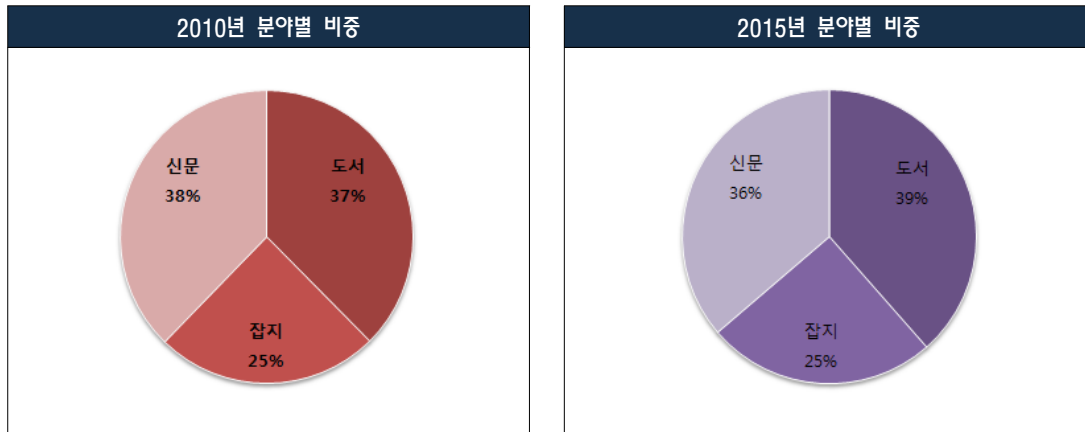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인터넷미디어종합연구소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출판 시장은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향후 경기 회복에 의해 2012년경 2007~8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잡지와 도서, 신문 시장으로 나누어볼 때 도서 시장의 성장폭이 가장 크고 이에 따라 2015년에 이르러서는 3대 부문 중 비중에 있어서 도서 시장 비중이 신문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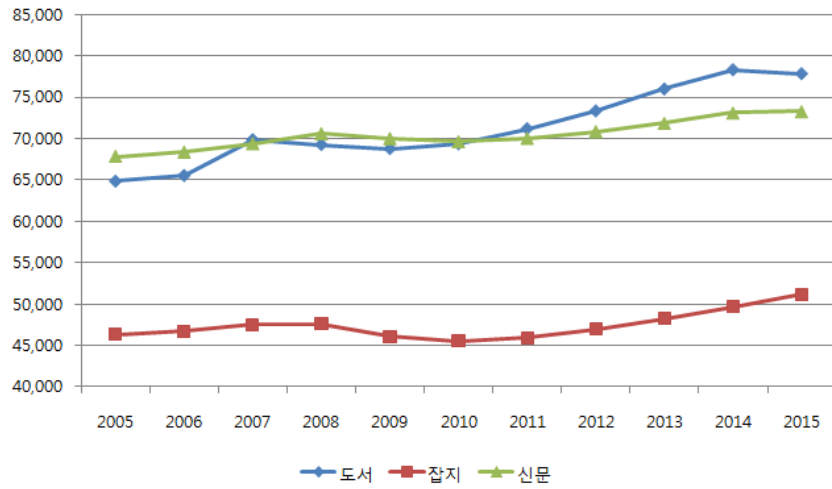
[그림 II-2] 2010년과 2015년 세계 출판 시장 분야별 비중



출판 시장의 세부시장별 규모 순위는 신문>도서>잡지의 순이며, 2010년 신문 시장은 696억 400만 달러, 도서 시장은 693억 4,800만 달러, 잡지 시장은 455억 2,3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도서 시장 규모가 신문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II-3] 세계 출판 시장 분야별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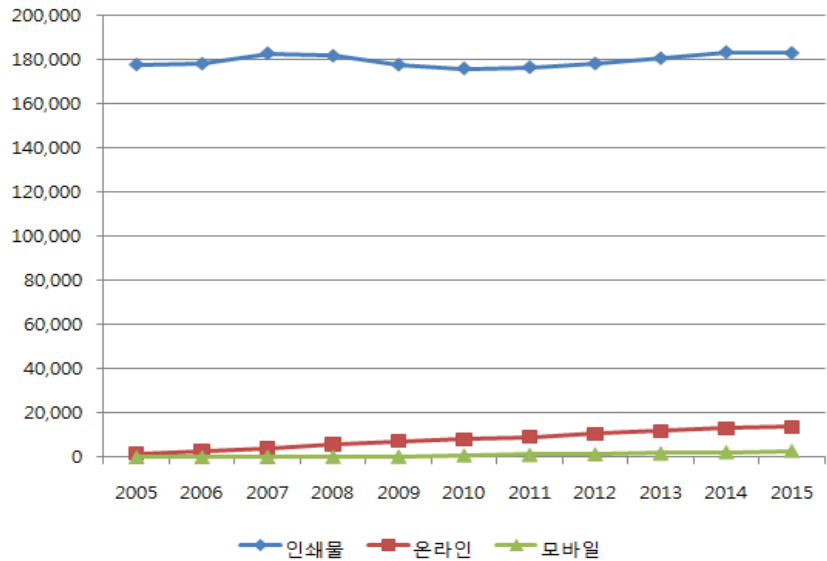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인터넷미디어종합연구소;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그림 II-4] 세계 출판 시장 인쇄물/디지털 시장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인터넷미디어종합연구소;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The Bookseller(2010.6)에 의하면, 세계 1위의 출판사는 Pearson이며(2009년 기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Reed Elsevier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매출액 증가를 달성하며 뒤따르고 있다. Pearson의 2008~2009년 매출액 성장률은 4.9%이며, 도서 판매 매출이 53억 유로(약 74억 달러)다. 2009년에 세계 10대 출판사에 새로이 진입한 업체로는 독일 미디어그룹 Holtzbrinck(Macmillan의 모기업)를 들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전문 출판사 McGraw-Hill이 순

위에서 벗어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경기 불황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상위의 출판사 대부분은 전년보다 매출액 신장을 기록하였으며, 예외적으로 Bertelsmann 과 McGraw-Hill이 매출액 하락세에 놓여 있다.

출판사 순위를 볼 때 출판 시장에서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어느 한 국가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일본은 50위권 안에 드는 출판사가 7개, 한국은 1개이며, 최근 이들 출판사들은 대부분 두 자리 수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II-2> 세계 10대 출판사

순위	업체명	모회사	국가	2009년 매출액 (백만 달러)	2008년 매출액 (백만 달러)	2008-09 성장률
1	Pearson	Pearson (Corp.)	영국	7,756.40	7,419.72	4.5%
2	Reed Elsevier	Reed Elsevier Corp.	영국/네덜란드/미국	7,367.12	6,746.01	9.2%
3	Thomson Reuters	The Woodbridge Co. Ltd.	캐나다	5,470.00	5,126.00	6.7%
4	Wolters Kluwer	Wolters Kluwer	네덜란드	4,910.77	4,963.15	-1.1%
5	Bertelsmann	Bertelsmann AG	독일	4,256.95	4,383.58	-2.9%
6	Lagardère Publishing/Hachette Livre	France Lagardère	프랑스	3,259.03	3,175.89	2.6%
7	Grupo Planeta	Grupo Planeta	스페인	2,586.58	2,588.96	-0.1%
8	McGraw-Hill Education	The McGraw-Hill Cos.	미국	2,388.00	2,639.00	-9.5%
9	De Agostini Editore	Gruppo De Agostini	이탈리아	N/A	2,235.29	
10	Holtzbrinck	Verlagsgruppe Georg von Holtzbrinck	독일	N/A	1,962.87	

자료원: Wischenbart. 2010.

출판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신문 시장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신문사들은 광고수입과 구독료 양 부문 모두에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OECD 보고서(2010)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신문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파리 소재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글로벌 신문출판산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신문 발행 종수가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OECD 31개국 중 20개국에서 신문 구독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30%나 감소했다. 반면에 유럽의 상황은 이보다 나아서, 독일이 10%, 프랑스는 4%, 오스트리아는 2% 감소에 그쳤다. 발행종수 또한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일랜드, 터키, 포르투갈 등은 예외였다. 비 OECD 국가들, 그리고 경기회복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 신문의 종말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전세계 신문출판시장 규모<sup>1)</sup>는 1,640억 달러(2009년 기준)로 추정된다. 이는 음반(270억 달러)이나 비디오게임(550억 달러), 영화(850억 달러) 시장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중국, 인도 등지의 경우가 가장 활황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신문 열독 국가는 일본이다. 1,000명당 1일 평균 526개 유료 일간신문이 판매된다. 그 다음으로는 노르웨이(458개), 핀란드(400개), 스웨덴(36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권

1) OECD는 신문시장을 인쇄 및 전통적 신문사의 온라인 구독 매출을 포함하는 시장으로 규정하였다.

3개국은 미국(160개), 호주(116개), 이탈리아(90개)다.

일본은 전세계 판매부수 10위권의 유료일간신문 중 5개를 보유하고 있다. 1위는 요미우리 신문으로, 1일 1,000만 부가 판매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의 신문 독자가 신문을 온라인으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능동적인 인쇄물 신문 독자들이 웹 신문도 더 많이 읽는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한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만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 세계 출판 시장 권역별 규모 분석

2010년 세계 출판 시장의 권역별 규모를 살펴보면 유럽권이 781억 달러, 그 다음으로 아시아권이 530억 달러, 세 번째로 북미권이 420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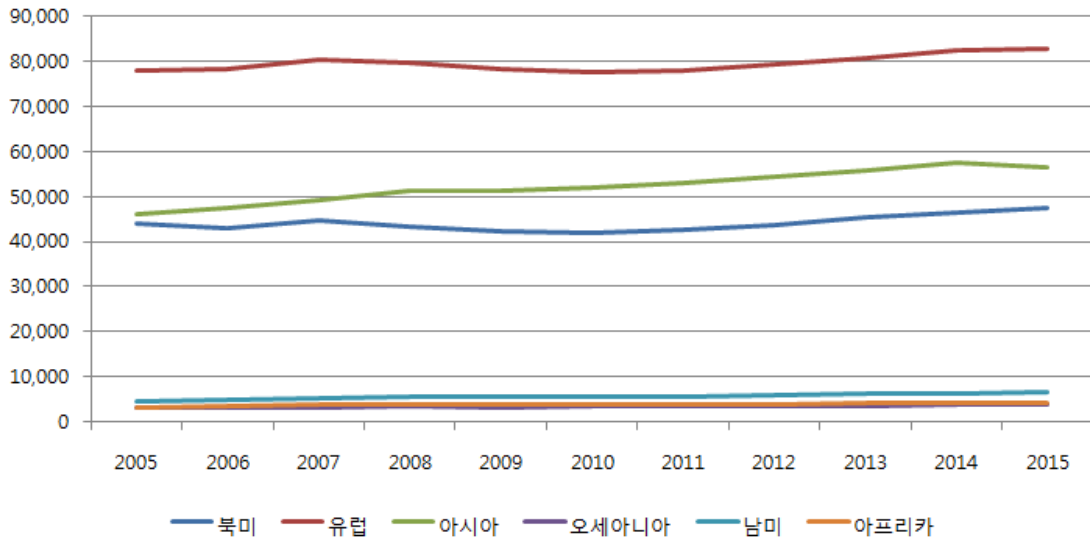
<표 II-3> 권역별 출판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북미권	44,140	42,993	44,679	43,391	42,342	41,959	42,641	43,754	45,262	46,365	47,559	2.5%
유럽권	78,020	78,478	80,442	79,771	78,277	77,543	78,087	79,223	80,662	82,425	82,787	1.3%
아시아권	46,026	47,591	49,318	51,381	51,271	51,893	53,043	54,386	55,920	57,534	56,555	1.7%
중남미권	3,134	3,212	3,246	3,295	3,275	3,281	3,342	3,433	3,549	3,693	3,836	3.2%
오세아니아권	4,566	4,838	5,186	5,413	5,451	5,550	5,698	5,903	6,125	6,363	6,602	3.5%
중동아프리카권	3,268	3,402	3,713	3,856	3,782	3,768	3,833	3,917	4,033	4,164	4,296	2.7%
합계	179,154	180,514	186,584	187,107	184,398	183,993	186,643	190,615	195,551	200,545	201,63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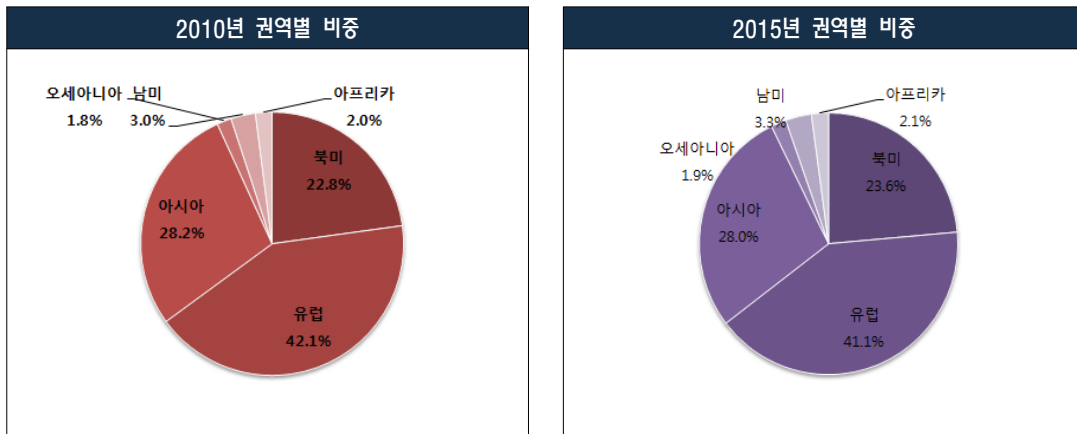
향후 5년간 권역별 시장규모는 전반적으로 성장추세에 놓여있는 가운데, 오세아니아권(3.5%)과 중남미권 시장(3.2%)이 3% 이상의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권, 중남미권, 오세아니아권의 성장률이 북미와 유럽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5] 권역별 출판 시장 규모 추이



2010년 세계 출판 시장의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권이 43.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럽권이 28.1%, 아시아권이 21.6%로 북미권과 유럽권이 세계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에는 북미권과 유럽권의 비중이 각각 41.8%, 27.2%로 2010년과 비교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 중남미권 시장이 성장함에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그림 II-6] 2010년과 2015년 세계 출판 시장 권역별 비중



자료원: PWC(2010); 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인터넷미디어융합연구소;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